

국립공원 무등산 5대 과제

1 군부대 이전·정상 복원

25년 숙원…天地人 삼봉 비경 이젠 시민품으로

광주시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관광객 증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사업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등산이 진정한 국립공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 통합, 사유지 매입·편의시설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 시대를 맞아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시민단체 등 요구 불구 국방부 불가 입장 고수

광주시 2016년 이전 목표 정상회복 절차 돌입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이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조만간 가칭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회복 운동’을 구성해 본격적인 무등산 원상 복구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무등산 정상 회복 운동은 그 역사가 20년이 훌쩍 넘을 정도로 광주 시민의 숙원이다. 지난 1989년 무등산 보호단체인 무등산 시민회와 함께 시작됐으며, 지난 1990년 정상 일부 개방에 이어 1996년 중봉지역 공군부대 이전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무등산 최정상(1187m)에 위치한 고 있는 공군 방공포 부대는 지난 1966년 광주시 광산구 공군전투비행단과 함께 들어선 뒤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특히 무등산 최고와 비경으로 꼽히는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이 방공포부대에 있으며, 군사시설로 인해 자연경관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정상 회복 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된 끝에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등산 군부대 철거를 지시하기도 했지만, 국방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흐지부지됐다.

국방부는 광주 광산구의 공군전투비행단과 무등산의 공군 방공포대가 서로 연계돼 있어 비행단을 이전하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처할 경우에만 군부대 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군사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임형철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산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을 못 가는 산은 무등산”이라며 “위성 등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용하는 시대에 누구에게나 노출된 산 꼭대기에 방공포 기지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낙후된

군사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광주에 전투비행장이 있고, 대표 명산의 정상에 방공포 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며 “무등산이 광주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정상회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6년 무등산 정상 군사시설 이전을 목표로 오는 5월 국방부에 방공포대 이전을 정식 건의하는 한편 이전 검토와 협의단계(6월~2014년 5월)를 거쳐 2015년 6월에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대체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중인 포항시 고금산 방공포대 이전 사례를 들어 사유지로 군부대를 옮기는 방식과 함께 군사시설인 만큼 국방부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한 덩어리도 더 아끼고 품위있게 가꾸어 한다”면서 “특히 정상에 즐비한 중계탑(방송·통신시설)을 통합하고, 군부대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새해 지역경제 도약 다짐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어 지역 경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강운태 광주시장, 장병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맹추위·젖은 눈 왜? ‘온난화 역습’에 삼한사온 실종

땀띠해진 2013년 첫 주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기록적인 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소한(5일)을 앞둔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다. <관련기사 6면> 기상청은 3일 발표된 ‘기상정보’를 통해 “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복사냉각이 더해져 3일 아침 최저기온이 내륙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전국이 영하 이하의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다.

광주도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낮은 영상 0.4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5도 이상 낮은 것이다.

본격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영하권의 기온은 5~6일 지속됐고, 영상으로 회복된 날은 1~2일에 불과한 패턴을 보였다. 겨울철 특유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 것이다.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복사냉각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온을 떨어

뜨리고 있는 것도 한파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는 지난달 14일간 36.6cm, 목포는 16일에 걸쳐 39.8cm가 쏟아지면서 각각 역대 일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눈이 잦았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자주 유입된 탓이다.

기상청은 이 같은 강추위의 원인을 ‘온난화의 역습’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북위 50~60도에 제트기류 벨트가 형성된다. 북극의 한기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는

북극권과 그 아래 대륙의 기온차가 클 때 강하게 형성된다. 일정한 파동을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제트기류를 타고 그동안은 북극 한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했다가 가로막히는 ‘삼한사온’의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렸고, 기온도 서서히 상승하면서 제트기류는 세력이 약화됐다.

결국 북극의 강력한 한기가 느슨해진 제트기류 벨트를 뚫고 곧바로

남하해, 예년보다 자주 우리나라에 강추위를 몰고 온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겨울철 기온은 2008년까지 꾸준히 올랐지만 이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앞으로 수년간 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4일 절정에 이르렀다 조금씩 풀리겠지만 주말까지 영하 4도에서 13도로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림

‘종교칼럼’ 필진 바꿨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대 마음의 길잡이가 될 광주일보의 ‘종교칼럼’이 2013년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찾아갑니다.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위로의 말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영 목사 도권 스님 조발그니 교수 하성래 교수

◇김재영(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미국 맥코믹 신학대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기독교문화선교회 광주대표

◇도권(백양사 포교국장)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과정 수료 ▲경북 군위군 인각사 주지

◇조발그니(목포가톨릭대 교수·신부)
▲프랑스 리옹 가톨릭대 신학 석사 ▲전남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하성래(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사무국 교육)
▲원광대 원불교 대학원 석사 ▲강원교구 영월교당 보좌교무

光州日報社

상무지구~첨단 6차선 도로 개설

2018년까지…국토부 타당성 조사 건의

광주시에 도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상무지구~첨단산단간 6차로 도로공사를 추진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4~2018년까지 1956억원(국비 917억원, 시비 1039억원)을 투입해 상무지구(유촌동)~첨단산단(산월동)구간 연장 4.94km, 폭 6차로의 도로개설 공사를 준비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도로를 혼잡도로 개선대상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의한 상태다. 이 구간은 광주시가 실시한 사전용역에서 B/C(비용 대 편익)가 1.66(1.0 이상이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조사됐다.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6~8차로 도로인 빛고을대로(시청~동림IC~북광주IC)의 2011년 하루 교통량은 13만여대로 교통량 분산이 시급하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도로 개설이 추진될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공사중인 하남산단 외곽도로와 북부순환도로,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에 이어 광주권의 모든 교통 혼잡도로가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올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사업 절제령까지 내린 광주시가

■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시비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에 각종 사업에 대규모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다,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연결해주는 직·간접 도로로 빛고을대로, 임방울대로 등 2개 노선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공사중인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3곳도 지난해 시비 175억원이 미확보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www.region.go.kr

지역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 더 열심히 뛰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한편,
주민의 행복이 최고가치인 지역정책을 만들어
지역의 활력을 최대한 높일 것입니다.

오천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행/직/속/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